



류현진, 다저스를 구했다

류현진 NLDS 3차전 워싱턴전 투구내용

5이닝 4피안타 2실점 1피홈런 2볼넷 3탈삼진 74개 투구 / 다저스 10-4 승 (최종 점수)
류현진 승리투수

	1회	2회	3회	4회	5회
LA 다저스	0	0	0	0	1
워싱턴 내셔널스	2	0	0	0	0

타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타순 1번	3루수 망블	유격수 망블	고의 볼넷						
2번	볼넷	중견수 뜬공	좌익수 직선타						
3번	중견수 뜬공	중견수 뜬공	중견수 뜬공						
4번	중견수 뜬공	중견수 뜬공	중견수 뜬공						
5번	유격수 망블	유격수 뜬공	유격수 뜬공						
6번	삼진(1K)	삼진(1K)	삼진(1K)						
7번	삼진(2K)	삼진(2K)	삼진(2K)						
8번	중견수 뜬공	중견수 뜬공	중견수 뜬공						
9번	삼진(3K)	삼진(3K)	삼진(3K)						

NLDS 3차전 5이닝 2실점 호투
워싱턴에 10 대 4 대승
MLB 플레이오프 3번째 승리
챔피언십시리즈 진출 1승 남아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극적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선제 투런포를 내준 장면은 아쉬웠지만, 류현진은 무서운 집중력으로 추가 실점을 차단하며 짜릿한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류현진은 7일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스파크에서 열린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2019 미국프로야구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DS·5전 3승제) 3차전에 선발 등판해 5이닝 동안 안타 4개를 맞고 2점을 줬다.

1회 후안 소토에게 2점 홈런을 맞은 게 뼈아팠을 뿐 5회까지 무너지지 않고 마운드를 지키며 팀의 10-4 역전승을 뒷받침했다.

개인 통산 3번째 포스트시즌 승리를 따낸 류현진을 앞세워 다저스는 시리즈 전적 2승 1패로 우위를 되찾고 챔피언십시리즈 진출까지 이제 1승만을 남겼다.

류현진은 2차전에 승리하며 기세가 오른 워싱턴 타선을 맞아 초반 실점했다.

1회 말 1사에서 애덤 이튼에게 볼넷을 내준 뒤 4번 타자 후안 소토에게 가운데 담장을 넘어가는 투런포를 맞았다.

맥이 풀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류현진은 2~3회를 연속 삼자범퇴로 틀어막고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4회 말 위기가 찾아왔다. 류현진은 선두 타자 앤서니 랜던과 소토에게 연달아 안타를 맞고 무사 1-2

루 위기에 몰렸다.

워싱턴 선발 야니발 산체스에게 다저스 타선이 꿈쩍 못 하던 터라 추가 실점을 할 경우 썩어붙이 될 수 있었다.

류현진의 올 시즌 마지막 투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괴물'은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했다.

류현진은 하위 켄트릭을 좌익수 뜬공, 커트 스텔스를 3루수 방면 병살타로 잡고 한 점도 내주지 않았다.

다저스는 5회 초 면시의 솔로포로 1점 차 추격에 나섰다.

류현진은 공수교대 후 2사 1-2루 위기에 몰렸지만 애덤 이튼을 좌익수 직선타로 잡아 추가 실점 없이 이닝을 마쳤다.

류현진의 혼신을 다한 역투에 다저스 타선도 화답했다.

다저스는 6회 초 2사 1루에서 대타 데이비드 프리즈가 우전 안타로 1-3루 찬스를 연결했고, 류현진과 배터리를 이룬 러셀 마틴이 구원 등판한 패트릭 코빈에게 2타점짜리 역전 2루타를 쳐냈다.

다저스는 이후에도 벤치의 힘으로 스코어를 더욱 벌렸다.

류현진 타석에 들어선 크리스 테일러의 볼넷에 이어 죽 피더슨 대신 나온 엔리케 에르난데스가 좌월 2루타를 터뜨려 다저스는 순식간에 5-2, 3점 차로 앞서갔다.

이어진 2사 1-2루에서는 저스틴 터너가 스리런 홈런을 쏘아 올렸다.

류현진은 "초반 기선제압이 중요했는데, 홈런을 허용해 힘든 경기를 치렀다. 다음 경기에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디비전시리즈 5차전에서 볼펜 등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준비할 것"이라며 올해 포스트시즌에 모든 힘을 쏟아낼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시즌 두달만에 사장·감독 교체...구단·선수단 곳곳 잡음



시즌 결산(하)
구심점 없는 '원팀'

외인 투수 터너·윌랜드 합쳐 15승
선수 영입·육성 성적 '초라'
젊은 야수층에도 투수 영입 주력
장타력·세대교체 여전한 고민

소통 부재·땀질식 경기 운영
성적 놓치고 미래 자원도 '빈 손'
안치홍·김선빈 재계약·내부 결속 등
스토브리그도 속제 산적

KIA타이거즈의 2019시즌에는 현재도 미래도 없었다.

KIA는 2017년 V11의 위업을 이루면서 새로운 왕조의 길을 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우승의 영광은 짧았다.

'우승 멤버' 그대로 판을 찢던 지난해 KIA는 5강 턱걸이를 하면서 3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에 성공했지만, 올 시즌은 5강 싸움에서부터 배제됐다.

우승을 이끌었던 주축 선수들의 동반 부진 속 우승의 공을 인정받아 단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했던 허영택 사장이 시즌 시작과 함께 이화원 사장으로 교체됐다. 이어 채 두 달도 안 돼 우승 감독으로 박수를 받았던 김기태 감독이 성적 부진 등의 이유로 자진사퇴를 하면서 구단과 현장의 수장이 모두 자리를 떠났다.

우승과 함께 선수 출신 첫 단장 타이틀을 차지한 조계현 단장은 자리를 지켰지만, 팀을 하나로 묶는 데는 실패했다.

지난 시즌부터 언급된 '소통 부재' 논란은 올 시즌에도 계속됐다. 선수단과 구단 사이는 물론 구단 내부에서도 소통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곳곳에서 잡음이 나왔다.

김기태 감독을 대신해 지휘봉을 잡은 박홍식 감독대행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확고한 목표를 잡지 못했고, 운영 방안이 수시로 바뀌었다. 특히 '베테랑'의 기용에 대한 어조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면서 팀워크에 악영향을 미쳤다.

전력 극대화를 위해 선수들을 한데 묶어야 했지만 기존의 두 수장이 떠난 뒤 '원팀'을 이끌 구심점이 없었다.

부족한 전력을 채우는 역할도 부족했다. 단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선수를 비롯해 신인·육성 선수 영입이 이뤄졌지만 과정과 결과 모두 매끄럽지 못했다.

올 시즌 KIA는 외국인 선수 3명을 한 번에 교체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결과는 실패였다. 해줄 베이커가 올 시즌 KBO리그에서 가장 먼저 짐을 싣고 외국인 선수가 됐고, 터너와 윌랜드는 15승 23패의 초라한 성적을 합작했다. 교체 선수로 온 터커만 그나마 제 몫을 해줬다.

또한 '야수진 세대교체'라는 과제 속 '투고타저'의 극명한 팀 전력 상황이 드러났지만 KIA는 올 시즌 신인 드래프트에서도 투수 영입에 초점을 맞췄다. 무엇보다 광주·전남을 연고로 해 지역 민들의 관심 속에 성장한 구단이지만, 우선 지명

선수를 제외하고 단 한 명의 지역 선수도 선발하지 않으면서 팬들과 지역 야구계를 실망하게 했다.

KIA는 올 시즌 눈 앞의 성적도 내지 못했고, 미래를 위한 기반도 만들지 못했다.

오랜 시간 거쳐 다져진 '젊은 마운드'가 그나마 소득과 힘이지만 야수진은 여전히 고민이다. 그동안 외부 영입으로 전력 채우기에 급급했고, 올 시즌 문제로 지적된 장타력에 힘을 보태줄 자원이 부족하다. 또한 수비형과 공격형으로 극단적인 약점들을 보이는 선수들도 많다. 올 시즌 '깜짝 스타'가 된 박찬호와 이창진은 첫 풀타임 시즌을 보낸 만큼 전력의 상수로 두기에 변수가 많다.

구단은 올 시즌 실패를 스토브리그를 통해서 만회해야 한다.

새 감독 선임부터 김선빈, 안치홍 두 FA와의 계약 등 외적인 중요한 업무도 산적했고, 통합이라는 중요한 내부 과제도 있다.

KIA가 2019시즌의 실패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쓴 실패를 미래로 가는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박홍식 감독대행